

#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나선다

### 전남도, 문화재청에 건립 신청서 정비사업 국정과제 채택 주도 최다 유적 보유 등 최적지 부각

전남도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운 마한역사문화권을 복원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추천서를 제출했다. 전남은 마한 유적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데다 마한 연구 및 유적 발굴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와 센터 최적지임을 부각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고고학적 조사·연구를 통해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 이래 문헌기록에서 잊힌 마한역사문화가 전남지역에서 6세기까지 독자적 문화를 꽃피웠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한 종합 정비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을 주도했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마한문화권 조사 지원

및 개발을 위한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 계획을 세우고, 2018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2019년 4월 마한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법' 제정을 건의했고, 11월 해당 11개 시군과 마한역사문화권 발전 업무협약을 해 마한문화권 학술대회(2회) 및 마한문화행사(2회)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마한역사문화권 정책 및 국고 지원을 지속 건의한 결과 2020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22년 5월 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포함한 '8대 역사문화권 종합적 정비·육성' 국정과제 채택을 주도했다. 8대 역사문화권 지원 사업 중 마한 관련 예산을 전국 최초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도 했다. 반영 예산은 마한역사문화센터 타당성 용역비 2억원, 마한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20억원이다.

전남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313억 원을 들여 마한 유적지 지표 및 시발굴조사, 마한문화권 연구조사 발간, 기타 학술대회 등 마한문화 발굴 및 복원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10일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역사교과서에 마한사 확대 반

영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마한문화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 방향 제시를 위한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호남·충청 등 마한문화권 7개 시·도를 아우르는 '초광역협력 마한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 예산 반영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마한 전국 유적은 78개소로 전남에 60개소가 있다. 그다음으로 전북 10개, 광주, 3개, 충남 5개 순이다. 전남의 국가사적은 7개소로 전국 사적 11개소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비지정 유적도 668개나 된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마한 역사문화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83억원을 들여 역사유적 조사 지원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매년 4개소)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전남에 유치해 유적·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문화재 활용 등 컨트롤 타워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메가 이벤트 줄 잇는 전남으로 오세요

### 전남도-관광재단 '체크인 남도' 여행사 등 초청 전남관광 설명회

'체크인 남도(Check-in Namdo)', 2023 전남관광 홍보 설명회가 최근 여수에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국내외 주요 여행사, 온라인 여행사(OTA), 관광시설, 시·군 및 유관기관의 관광업계 종사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광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 홍성일 전남도관광협회장, 김원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도 함께 했다. 설명회에서는 전남도내 관광자원 홍보, 주요 관광정책 소개, B2B 상담 및 네트워킹, 인바운드 여행업계-시·군 간담회 순으로 이뤄졌다. 설명회와 연계해 진행된 여행업계 팸투어

는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30여 명의 참가자들은 낭만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맛 코스(순천·보성)'와 시·군 대표 먹거리를 맛보는 '맛 코스(곡성·담양)'로 나누어 1박 2일동안 도내 대표 관광자원을 답사했다. 보성 보향다원 나만의 차(茶) 만들기, 순천 포라이즌 글램핑, 곡성 멜롱살롱 멜론 디저트, 담양 추성주 양조장, 화순 금호리조트 온천욕 등 체험형 관광자원을 소개해 향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윤형순 전남관광재단 마케팅팀장은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여행업계와 협력을 다지고 전남관광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특히 올해는 전남도에서 다양한 메가 이벤트가 준비되어있는 만큼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산림자원연, '탄소중립 시범숲'으로 기후위기 대응

### 해남 산림바이오 생산단지 조성 전 직원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24일 해남 산림바이오 생산단지에서 미래 유망 산림바이오 소재 공급과 기후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시범숲 조성'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산림자원연구소 전 직원이 참여해 탄소흡수능이 뛰어난 붉가시나무 350여 그루를 심었다. 행사 후에는 봄철 산불 예방과 함께 도유립 주변 임도를 따라 쓰레기 수거 등 산지 정화활동도 펼쳤다.

산림자원연구소는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탄소중립 숲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바이오 소재로 주목받는 도내 비교우위 난대 수종 기능성의 산업화 방안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 수목의 집중화를 막는 산림의 영급구조 개선과 스마트 양묘, 산림바이오 산업화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2021년부터 해남 마산면 상등리 도유림에 265ha 규모로 '난대수종 연구단지'와 미래 산림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원료 공급지인 '산림바이오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테마별 산림바이오, 산림과수, 밀원수, 자생자원, 유용자원, 바이오매스 등 6개 연구지구와 천연림, 인공림 보전지구 등 4개 보전단지로 구성됐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에 심은 붉가시나무는 전남 지역에 자생하는 대표적 난대 수종으로 재질이 단

단하고 균일해 예로부터 건축이나 군사용 재료로 사용돼 왔다.

산림자원연구소는 2023년 산업통상부, 농식품부, 산림청 주관 7개 연구개발과제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남천연자원연구소, 조선대학교, 네추럴엔도텍, 좋은영농조합법인, 전북산림환경연구소와 함께 '붉가시나무 피부미백 화장품 개발' 연구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찾아가는 SW·AI 코딩 교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오는 8월 25일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SW·AI 코딩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도내 20개 지역의 82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6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업·해양·관광·드론 등 전남 특화산업에 대해 50차시 이상의 장기적 코딩교육을 진행한다.

진흥원은 지난 2019년부터 SW교육 기회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서벽지, 읍·면 지역 등 정보소외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SW교육 기회 제

공 및 저변확대를 위해 ▲SW코딩, ▲사물인터넷 IoT(센서), ▲AI(인공지능) ▲드론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인용 원장은 "SW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에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전남 도내 초·중학생들이 SW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에서 가장 맛있는 김은?

### 7개 시·군 80개 김 참가 품평회 식감 등 뛰어난 10개 선정 상금

전남도가 전 세계인의 인기를 얻고 있는 전남의 김 가운데 가장 맛있는 김을 뽑는다. 경쟁을 통해 전남 김의 우수성을 향상하고,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2일 한국김산업연합회 회의실에서 전남 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김 품질관리제 안정적 도입과 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제2회 전남 으뜸 김 품평회'를 개최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김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품평회엔 고흥 20개 제품과 함께 장흥 1개, 해남 23개, 무안 4개, 완도 20개, 진도 10개, 신안 2개 제품 등 7개 시·군에서 총 80개 제품이 참가했다.

출품된 마른김은 색깔, 식감, 향미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와 단백질 함량, 이물질, 색도 등 과학적 성분 분석을 통한 정량적 평가를 하고 점수를 합산해 전남도 최고 품질의 마른김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품평회 선별위원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가와 함께 한국소비자연맹에서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상금 규모는 2800만원 상당으로, 마른김 생산자와 함께 물김 생산자에게도 시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전문가 품평회 평가 결과와 기계적 정량평가 결과를 합산해 품종별 총 10개의 우수 제품을 선별하며 추후 김의 날 행사에 시상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과공과장은 "전남 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으뜸 김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마른김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남 김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화지점